

알버타-알래스카 철도 신설 트럼프 승인

개발 첫 단계...양국 환경평가, 정부 허가 등 남아

공사 착수시 2만개 일자리 창출 등 큰 효과 기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와 앨버타를 잇는 2,570km 철도 노선 신설을 승인했다. 국경 양편에서 여러 가지 승인 단계가 남아있지만 총 220억 달러 규모의 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서부 캐나다에서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북미 내륙으로의 물류 수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앨버타주 정부는 사업 추진 회사 A2A의 이름을 따 'A2A 알래스카-앨버타' 철도로 명명된 이 노선 개발의 첫 단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환경 영향 평가, 관련 정부 허가 등 여러 승인 단계를 남겨 놓았다.

앨버타주 정부는 2015년부터 이 철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에 돈을 대는 등 사업 추진에 공을 들여왔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시작돼 캐나다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를 거쳐 앨버타 중부까지 이르는 대공사가 벌어질 경우 최대 1만8,000명의 신규 고용이 이



러지는 등 서부 캐나다에 떨어질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 철도 노선은 또한 앨버타산 원유의 아시아로의 수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던 게이트웨이(Northern Gateway) 등 BC주로의 원유 수송관 공사가 원주민, 환경 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은 현재로서는 원유 수송을 철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 철도를 통해 한국에서 앨버타 등 북미 내륙으로 보내는 물류 수송도 크게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대 초, 중반 캐나다 석유 시추 사업이 한창이던 시절 한국에서 만들어진 시추 관련 장비들이 대거 앨버타,

사스카추완 등으로 수송됐는데, 도로 2차선을 모두 점유한 채 이동해야 하는 사정으로 태평양 연안에서 내륙까지의 운반이 만만치 않았다.

물류가 지나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밤에만 도로를 쓸 수 있는 등 제약이 많아 실제 거리보다 훨씬 먼 우회로를 거쳐야 했다.

앨버타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아시아 시장과의 연결을

위해 바닷길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철도 신설은 그중 앞선 것으로 이외에 또 다른 회사 G7G에 의해 계획된 제2의 철도 노선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2A는 지난 7월 프로젝트를 위해 앨버타의 토지를 조사하고 결국 토지 개간, 율타리 및 접근 도로 준비와 같은 초기 현장 활동에 참여하도록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앨버타주지사 대변인 크리스틴 미 아트도 지난 토요일 미국의 A2A 철도 프로젝트의 승인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앨버타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주와 알래스카를 잇는 철도의 개념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비용을 지불했다. 철도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석유 파이프 라인 운송에 대한 대안을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A2A 라인은 석유, 곡물, 광석 및 기타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게 된다.

2015년 처음 작업을 시작한 A2A는 지난 몇 년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두 회사 중 하나이다. 또 다른 회사인 G7G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있다.

캐나다인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 개최

밴쿠버 총영사관의 정병원 총영사는 지난 24일(목) 오후 3시,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홀랜드 클린턴 베이컨 대위에 대한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베이컨 대위는 1931년부터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1943년10월부터 1944년9월까지 인도주재 영국군

장교 신분으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와 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선무공작 및 문서번역 등의 활동을 했던 사실을 인정받았다.

베이컨 대위의 1남 휴 베이컨 박사는 아버지 베이컨 대위를 대신하여 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베이컨 대위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지정은 외국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72번째 독립유공자 지정이면서 캐나다에서는 1968년 이후 52년 만에 새로운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가 지정된 것이다.

이로써 캐나다는 중국(34), 미국(21)에 이어 영국과 함께 3번째로 많은 수(6)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힘내세요! 한인 여러분. 코로나 재난 함께 이겨냅시다!

캘거리 한인회
Calgary Korean Association

캘거리 한인회
회장 : 구동현
주소 : 7008 Farrell Rd SE, Calgary AB T2H 0T2
전화 : 403-216-4600
이메일 : cka0607@gmail.com
웹사이트 : <http://calgarykorea.com>

캘거리한인노인회
Calgary Korean Seniors Association

캘거리 한인 노인회
회장 : 안길웅
연락처 : kilungahn@hotmail.com

자매 단체 노인 대학

캘거리한인여성회 / 코리아 아트 클럽
Calgary Korean Women's Association

캘거리 한인 여성회 / 코리아 아트 클럽
회장 : 고경숙
주소 : 3530 11a St NE #4, Calgary, AB T2E 6M7
전화 403-861-8231
kyoungsookko@gmail.com, heejo
웹사이트 : calgarykoreanwomen.com

캘거리 한인회 소속 자원 봉사 단체

도움나눔
Calgary Volunteers

SNS와 온라인으로 소통합니다

캘거리 역사상 최대 규모 네트워킹 행사
♠ 청춘학개론 ♠

Instagram : dowoom.nanoom

캘거리 실업인 협회
Calgary Korean Unemployed Association

캘거리 실업인 협회
회장 : 박홍재
이메일 : kcba@live.ca
전화 : 403-258-1161
웹사이트 : www.calgarykcba.com

캘거리 한인양로원 건립
실업인협회도 후원합니다

캘거리한인장학재단
Calgary Korean Scholarship Foundation

캘거리 한인 장학재단
이사장 : 길이룡
전화 : 403) 567-0402
이메일 : hyunjucho@hotmail.com
웹사이트 : <http://www.calgaryksf.org/>

캘거리한인장학재단은 백만불 재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유연장 서명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